

제2강 맞춤법과 띄어쓰기

(1교시)

▲ 한글 맞춤법이란?

1970년부터 검토를 시작하여 17년간의 작업 끝에 1933년 조선어학회가 제정한 한글 맞춤법통일안을 수정, 취사 선택하여, 1988.1.19일 고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89년 3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함. 지금 사용하는 맞춤법은 4반세기 정도의 역사를 지닌 것.

물론 짧은 기간 정착된 맞춤법을 완벽히 익히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맞춤법의 왕도는 없기 때문에 수시로 국어사전을 참고하여 공부하는 길이 최선임.

▲ 혼동하기 쉬운 맞춤법

가.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①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총칙 전체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표준어 규정 총칙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소설은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은 소설 속의 다양한 토속어와 사투리도 한 몫을 한다는 것도 염두 해 둘 필요가 있음

즉, 맞춤법은 기본적인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② 회집? 횡집(O)?

순대국? 순댓국(O)?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 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사이시옷을 적는다.

그러나 언중의 대부분이 발음과 표기를 일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 실제 생활에서 맞춤법의 정확히 사용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말의 근간을 흔드는 것만 아니라면 언중의 편의에 맞게 사용하는 것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는 현장성과 언어생활의 생생함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③ 가까와? 가까워(0)?

‘ㅂ’으로 끝난 어간에 ‘-아/어’가 결합되면 ‘워’로 바뀌어 활용함. 다만, ‘돕-, 곱-’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와’로 소리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
때문에 ‘가깝다’에서의 ‘가깝-’이 ㅂ으로 끝났기 때문에 가까워가 되는 것이고
‘돕다’, ‘곱다’와 같은 단음절 어간은 이와 다르므로 ‘도와’, ‘고와’가 되는 것이다.

④ 오뚜기? 오뚝이(0)?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되며,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때문에 ‘오뚝’의 원형을 밝혀서 오뚝이가 맞는 표현이 되는 것

*권커니잣커니 → 권커니 잣커니

개발새발 → 꾀발개발

금새 → ‘금시에’의 준말이므로 금세

육개장 → 육개장

떡볶기 → 떡볶이

⑤ ‘-예요’와 ‘-에요’

소설가 예요 -모음으로 끝난 명사에 ‘-이에요’가 결합하면 ‘-예요’가 되는 것.

⑥ ‘안돼죠’와 ‘안되죠’

‘돼’는 ‘되어’의 준말이므로 단어의 뒤에 ‘되어’를 넣어서 말이 되는 지를 살펴본다.

▲ 의미에 따라 헛갈리는 단어들

장본인과 주인공

“그가 소동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 ‘소동’은 부정적의미를 가지므로 ‘장본인’이 적함

부치다와 붙이다.

편지를 부치다

우표를 붙이다.

로서와 로써

로서-자격을 나타낸다.

로써-수단을 나타낸다.

예> 아버지로서 할일을 했다

칼로써 일어난자 칼로써 망한다

던지와 든지

던지-과거에 했던 일을 나타냄

예>얼마나 먹었던지 배가 나왔다.

든지- 선택을 나타냄

예>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렴

틀리다와 다르다

의견이 서로 다르다(O)

의견이 서로 틀리다(X)

치루다와 치르다

치루다는 사전에 존재하지 않음. 치르다가 적합하다.

예>잔치를 치러야 한다.

이러한 맞춤법의 사용에 있어서 왕도는 없기에 틀릴 때 마다 국어사전이나, 국어 관련 인터넷 사이트(국립국어연구원 등) 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2교시)

▲ 혼동하기 쉬운 띄어쓰기

가. 한글 맞춤법 총칙 제 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예>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처럼 꽃이다 꽃입니다 웁니다그려 들어가기는커녕

그러나 조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조사는 혼자서 사용할 수 없고, 앞말에 붙어서 온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조사라고 생각하면 쉽다. 따로 떼어서 말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라.

①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예>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의존명사도 앞의 말이 꾸며주는 가를 살펴본다. 의존명사도 명사이므로 혼자서도 의미를 가질 수는 있으나, 의존할 대상이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면 된다.

-터

할 텐데요-터가 의존명사이므로 할과 텐데요는 띄어 쓴다.

-지

그랬는지 안그랬는지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시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띄어 쓴다.

②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북어 한 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3대대 50원 10개 8미터

즉, 원칙은 띄어 쓰되, 위의 예외적인 경우는,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된다는 것.

*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책상, 걸상 등이 있다 부산, 광주 등지

*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때 그곳 좀더 큰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그 때 그 곳 등 연이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띄어 써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시각적인 모양새를 유념한 것이라 한다.

▲ 일상에서 혼동하기 쉬운 띄어쓰기

‘안’

학교에 지각하면 안 된다(일반적인 경우)-일반적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

그 사람 너무 안됐다(‘잘되다’의 반대)-관용적인 ‘잘됐다’의 반대이기 때문

자식이 안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잘되다’의 반대)-관용어의 반대이므로

이 두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띄어 쓴다.

‘못’

시간이 없어 그곳에 못 간다-일반적 부정
술은 마시지만 담배는 못한다-관용적 ‘잘한다’의 반대
기가막혀 말을 하지 못했다-한 단어로 취급되므로

‘동안’

그동안, 오랫동안, 한동안은 한 단어로 붙여 쓴다

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하나, 언중의 대부분이 것처럼 사용하므로 관용적으로 붙여 쓰도록 규정된 경우.
오랜 동안 은 띄어 써야 함을 유의.

‘-커녕’, ‘-는(은)커녕’

모두 붙여 쓴다. 이는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다.

‘것’

내 것, 네 것, 오빠 것

-이 때는 것이 의존명사로 쓰였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이것, 저것, 요것, 그것, 고것, 아무것

-한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붙여 쓴다.

‘-지 않다’

가지 않다, 먹지 않다

-의존명사 이므로

마지않다, 머지않다 못지않다

-한 단어로 쓰였다.

‘-르텐데’, ‘-르테야’

‘터’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예> 그렇게 할 테지만

▲ 강의 마무리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글을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의 통과의례에 불과한 것. 문장 구성의 기본 조건은 될 수 있으나, 필수 요건은 아니기 때문이다.